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서부  
양산의 새로운 시작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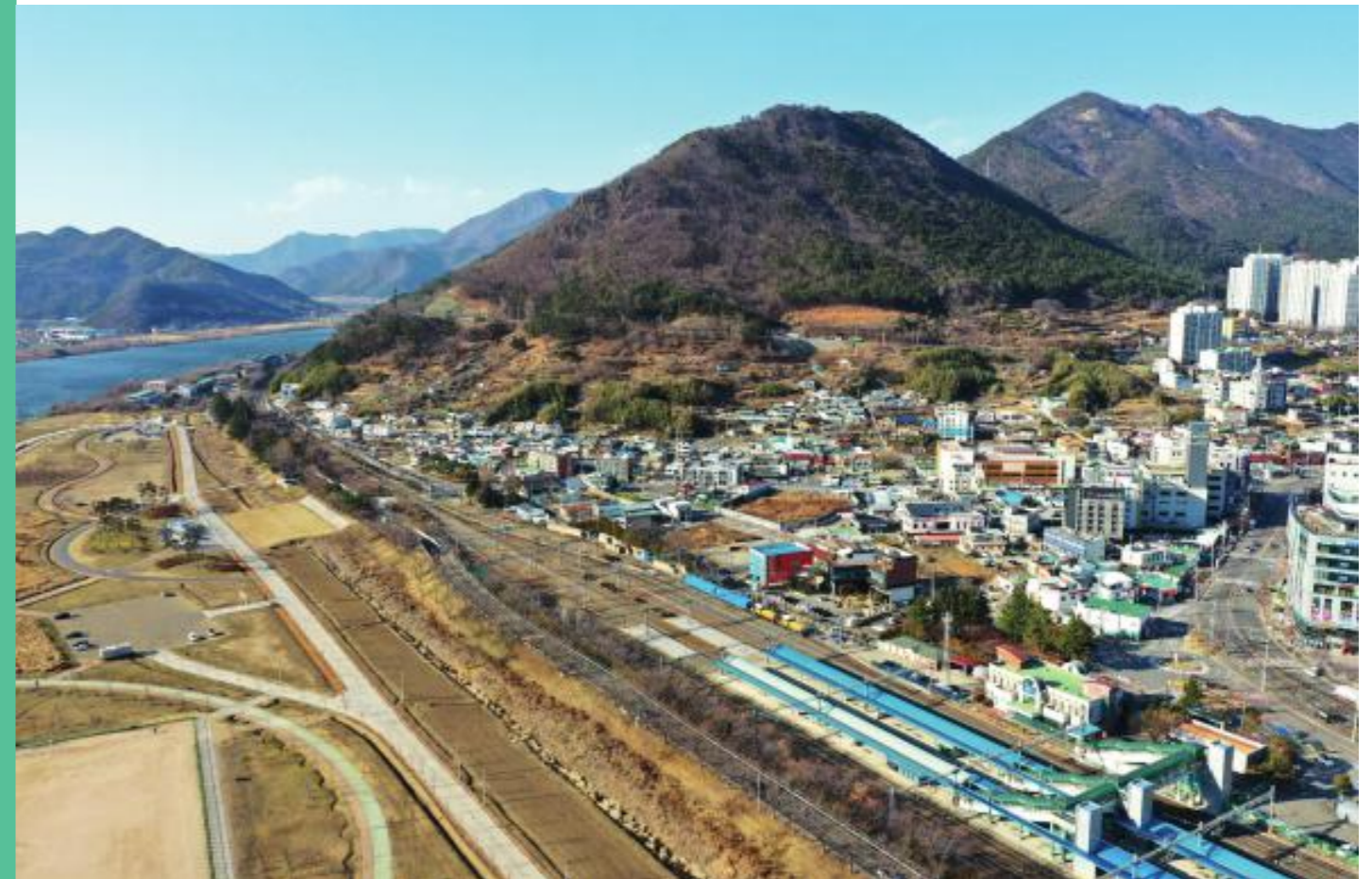
: 서부 양산의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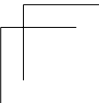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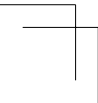
양산시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서부

양산의 새로운 시작

서부마을의 잊혀진 황산역은 조선시대 교통의 요충지였다.  
새로이 KTX 정차역이 조성되어 양산의 시작을 알리는 문화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연도미상) 언니들과 나



(연도미상) 우리가족



(연도미상) 부모님의 전통 혼례





(1989) 강가에서 휴식 시간



(1989) 들에서 같이 일하는 서부마을 주민들





(연도미상) 선명점 할머니와 손자, 강가 텃밭에서



(연도미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1995) 제1기 물금농협주부대학 수료식



(연도미상) 젊은시절 구동이

센터장 발간사

##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할 기회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김남룡(58)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대문명의 뿌리는 농경사회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촌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우리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분한 가치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농촌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마을 고유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활상 등의 소중한 지역자원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사회가 서서히 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최근 우리 센터는 농촌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원로인 어르신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그 분만이 지니셨던 아이덴티티 등 소중한 농촌문화들이 계승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역 원로인 한사람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이 감소하여 결국 농촌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라져 가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마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기록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양산시 농촌지역

마을들이 지닌 유·무형 자원들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양산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마을의 체계적,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지역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삶 속 이야기와 잊혀가는 농촌 마을의 옛이야기를 기록화하는 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양산시 농촌 마을이 지닌 고유의 문화, 복지, 경관,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발굴하고 재정립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역민에게 공유하고 확산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산시 마을 아카이빙 북 발간이 우리 양산시 농촌지역 마을발전에 주춧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지역문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아울러 이러한 전통적인 농촌문화들이 대대손손 잘 계승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발간에 힘써 주신 양산시 균형개발과와 물금읍 서부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센터 연구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양산시와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의 농촌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참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양산시 농촌 활성화와 마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마을 이장 인사말

## 새로운 시작, 서부마을입니다

서부마을 이장  
서영기(63)



“함가치가보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서부마을 이장 서영기입니다. 물금읍의 황금 들녘이 사라지고 아파트촌이 들어섰습니다. 물금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서부마을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으며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년부터 이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전임 이장님이 진행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조롱박 가꾸기, 마을 축제 등을 주민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을 내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함께 가는 마을로 만들고자 시작되었고 도시재생 교육에 집중하고자 많은 시간을 주민들과 함께 교육받으며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금지구 추진위원장을 맡아 마을 구석 구석 정비 및 경관 개선과 여러 행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마무리 행사로 마을회관 2층에 ‘황산문화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내년에 본 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 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협동과 단결로 마을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교육에 열중하고, 황산장터, 조롱박 축제 등 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즐거운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부마을은 ‘황산역지’라는 문화재 개발에 함께하며 마을의 발전을 거듭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돌레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용화사를 거쳐 임경대까지 한 바퀴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대나무같이 곧은 생각을 가지고, 세월이 변해도 마음은 변치 말자.’

마을을 위한 봉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심을 버리고, 이웃을 한 번 더 보며 순리에 맞게 일하겠습니다.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b>1</b>	<b>서부마을 미리보기</b>	지도로 보는 서부마을	14
		숫자로 보는 서부마을	16
		벽화로 보는 서부마을	18
<b>2</b>	<b>마을, 역사 한 바퀴</b>	황산역	34
		물금역	37
		황산공원과 나루터	41
		물금광산	44
		당산나무	46
		물금 포교당 반야사	48
		물금제일교회	51
		서리단길	54

### 3 함께한 추억을 기록으로

서부마을 풍물패	60
서부마을 축제와 황산장터	64
서부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74

### 4 우리가 꿈꾸는 마을

서부마을이 있기까지	102
이장님을 소개합니다	104
현재가 중요합니다	108
나의 고향은 서부마을	112
전하고 싶은 말	120





# 1

## 서부마을 미리보기

지도로 보는 서부마을	14
숫자로 보는 서부마을	16
벽화로 보는 서부마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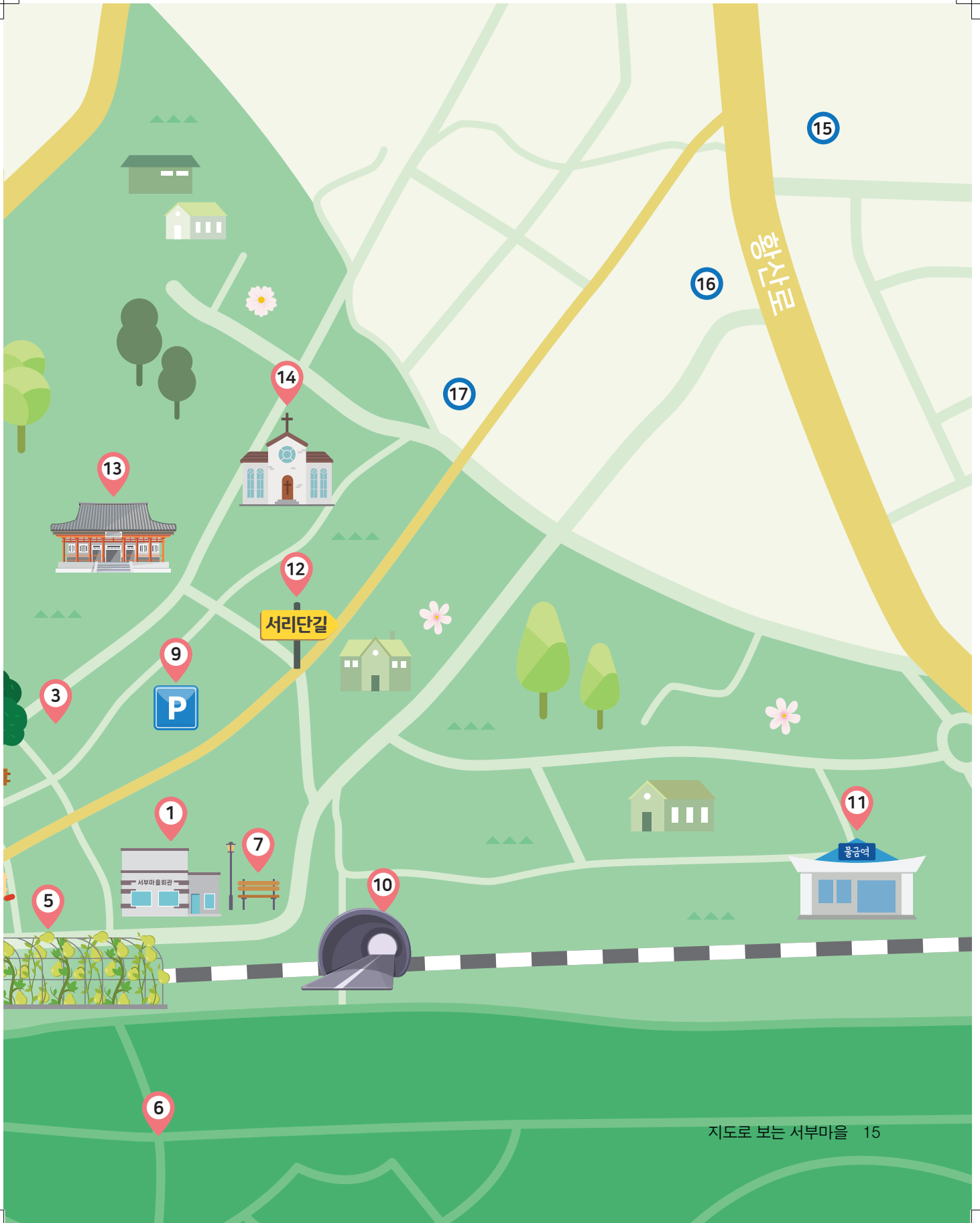


# 지도로 보는 서부마을

- |         |              |              |
|---------|--------------|--------------|
| 1 마을회관  | 7 소공원        | 13 물금포교당 반야사 |
| 2 당산나무  | 8 베랑길정원      | 14 물금제일교회    |
| 3 황산역 터 | 9 공영주차장(2개소) | 15 물금행정복지센터  |
| 4 물금나루터 | 10 지하차도      | 16 물금농협      |
| 5 조롱박터널 | 11 물금역       | 17 공영주차장     |
| 6 황산공원  | 12 서리단길      |              |







지도로 보는 서부마을 15

# 숫자로 보는 서부마을

## 인구 현황

서부마을 인구수

2008년 **957**명

2022년 **450**명

세대수

2008년 **423**가구

2022년 **245**가구

## 시설 현황



쉼터

**3**개

소공원  
베랑길정원  
황산공원



공동시설

**1**개

마을회관



주차장

**2**개

임시 공영주차장

## 경제활동 및 상가 현황

농업 **0**명

어업 **5**명

## 마을 현황

마을조직

개발 위원회

**6**명

지원사업 운영·추진 등  
주요사항 토의 및 의결

부녀회

**16**명

마을행사 지원 및 봉사활동

노인회

**47**명

노인 프로그램 및 경로당 관리·운영

청년회

**10**명

마을행사 지원 및 봉사활동

풍물패

**18**명

마을행사, 당산제 등  
마을 대표 풍물 공연단

## 마을 진행 사업

###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기간 **2011년 ~ 2013년**

내용 도로 4개 노선 확충  
소공원 2곳, 주차장 2곳 조성  
마을회관 부지 조성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농림부)

사업 기간 **2016년 ~ 2018년**

내용 박터널 조성  
자전거 주차장  
주민 쉼터

### 마을만들기 사업 (양산시)

사업 기간 **2021년 ~ 2022년**

내용 용화사~임경대 둘레길 조성  
박터널 전시공간  
마을 안길 벽화

### 2022 문화우물사업 (예비마을)

사업 기간 **2022년**

내용 향산장터 개최

###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 기간 **2022년**

내용 [함!가치가부자~]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1) 함가부자 거점공간 조성
- 2) 사회혁신형 역량강화프로그램
- 3) 문화마켓 운영

#### 마을기업 조직육성 사업

- 1) 마을기업 조직 육성
- 2) 마을기업 네트워크 구축

#### 마을브랜딩 사업

- 1) 동부서부마을 아카이빙
- 2) 마을지도 제작 및 마을경관개선사업

# 벽화로 보는 서부마을



박 꽃이 활짝 피었네 (2022.4)

벚꽃 버스킹 축제에서 문화예술체험으로 그린 벽화





박 꽃이 활짝 피었네 (2022.9)

---



연인(2019)

서리단길에 놀러오는 관광객들 중 연인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창문이 안경으로 활용된 모습이 재미있고 인상적이다.







22 서부마을 미리보기





기차마을 사람들 (2019)

담사랑벽화봉사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그린 기차와 캐릭터



양산타워 모래성 (2019)

양산타워를 동화같은 느낌으로 재탄생 시킨 벽화



벽화로 보는 서부마을 23

천사날개(2019) | 천사의 날개를 그렸다.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어보자.



24 서부마을 미리보기



가족벽화(2019) | 한 골목에 연속으로 이어진 담장. 한 가족이 각자 하나의 담을 맡아 그렸다.





자화상 (2021)

조롱박터널 안 갤러리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캐리커처 자화상



내가 그리는 조롱박 (2021)

조롱박터널 안 갤러리에 있는 조롱박 모자이크





나만의 손 (2021)

조롱박 터널 갤러리에 있는 나의 손과 머그컵 화분



유순자



심명순



박복남



박영옥



김정애



김인자



배태희



서영기



양춘자



류남열



윤옥순



김길평



이순자



유순득



김종남



김재관



김두수



손분희



심양자



이춘옥



정귀선



배경연



허기재



오배근



권경숙



임금실





전복자



김지근



선명점



허병선



이수자



권명철



강부돌



김민성



정미애





# 2

## 마을, 역사 한 바퀴

황산역	34
물금역	37
황산공원과 나루터	41
물금광산	44
당산나무	46
물금 포교당 반야사	48
물금제일교회	51
서리단길	54



# 동래와 한양을 이어주던 황산역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역은 교통, 통신, 숙박 등을 제공했다. 역참에서 관리들은 역마를 갈아타고 기관의 소식이나 공문서를 전달했다. 군사/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행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록에 따르면 황산역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서부마을 북쪽 끝에 위치했던 황산역은 경남 최대 역 중 하나였고, 동래에서 한양을 연결해주는 영남대로의 주요 거점이었다. 고려시대 황산역은 금주도에 속해 있었다. 금주도는 당시 경남 지역 업무의 절반을 관장할 정도로 큰 역할을 수행했고, 그의 속역이 모두 31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황산역은 기능이 강화되면서 황산역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황산역의 속역이 11개, 조선 후기에는 16개로 늘어났다. 부산, 밀양, 김해, 양산의 중심에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 황산 벼랑길

조선시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최단 거리의 도로인 영남대로에 ‘황산잔도’가 있었다. 잔도는 벼랑에 나무를 선반처럼 내매어 벼랑길을 만든 것이다. 걷기는 힘들지만 통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었다. 양산 방언으로 벼랑길을 ‘벼랑길’이라고 불러 황산 잔도는 지금의 자전거길인 황산 벼랑길이 됐다. 2012년 4월, 벼랑길 복원 사업으로 양산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이 된다. 낙동강 하굿둑에서 안동 댐까지 총 길이 389km의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중 약 20km가 양산시에 속해있다. 낙동강변을 따라 물금리와 원동면 화제리를 거쳐 원동면 용당리까지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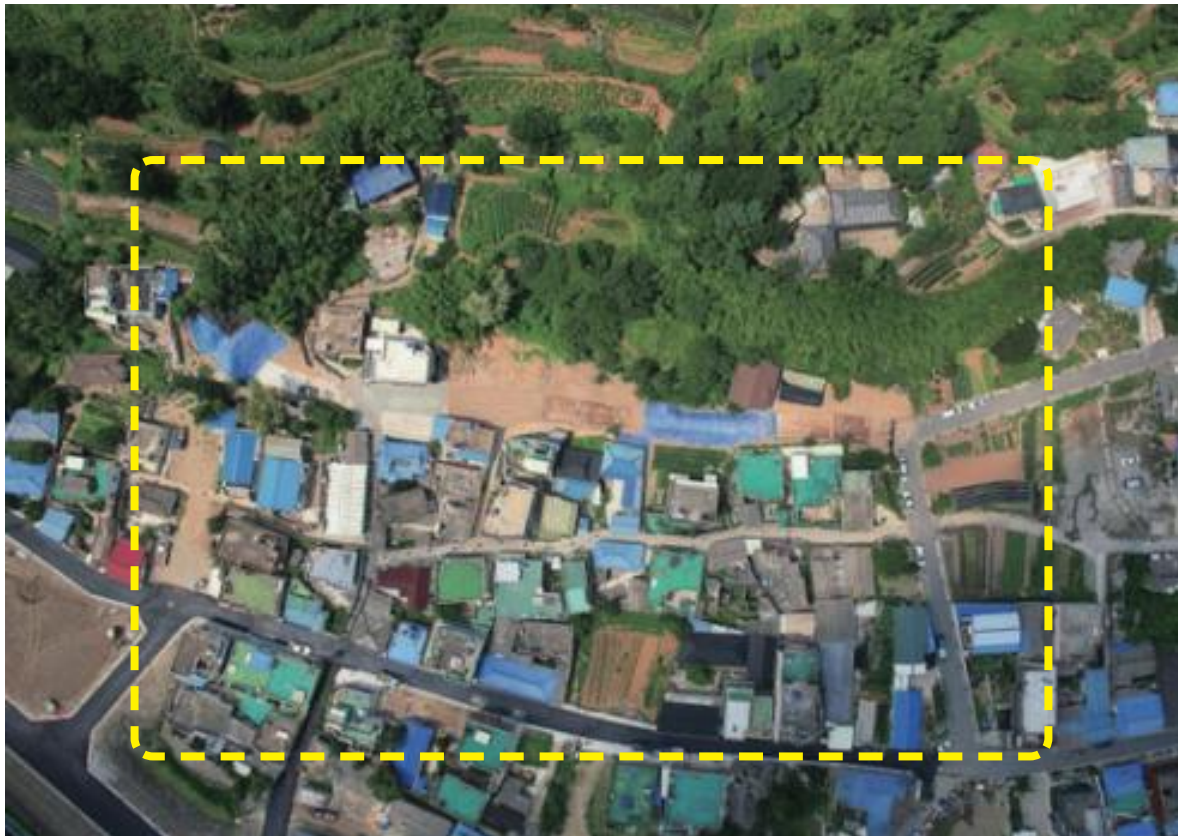


## 황산역의 위치와 이전

황산역은 양산군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위치하고 있었다(‘양산군읍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위치는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90-1(화산4길 18)로 추측된다. 1742년, 1787년에 두 차례의 홍수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고 역토가 침식되어 황산역은 피해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수해가 잦은 지역이라 규모가 줄고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1857년 황산역의 위치를 상북면 석계리에 있던 위천역과 바꾸었다. 1895년 역원제가 폐지될 때까지 약 40년간 지금의 상북면 상삼리 일대로 옮겨 활동했다.

황산역터 발굴조사지역



# 양산의 관문 물금역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물금역 전경(2022년)

물금역은 최근 KTX 정차 소식이 들리며 훨씬 발전되고 활성화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물금역에 내리면 황산공원이 바로 있어 자전거를 타는 여행객들을 많이 마주친다. 과거에는 일본으로 통하는 길의 중심으로, 현재는 가까운 지역으로의 출퇴근을 도우며 교통의 요지로 우수한 역할을 해왔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물금역의 시간을 거슬러본다.

## 철도의 개통과 일제시대 수탈의 관문

경부철도가 개통되던 1905년 물금역은 지금의 위치보다 위쪽인 서부마을 언저리 쪽에 있었다. 1939년에 배후터가 넓은 현재 역사 자리로 옮겼다. 물금역을 이전한 1939년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며 본격적으로 물자를 공출하고 인력을 징발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메깃들녘의 쌀과 오봉산 자락의 목화를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물금역에는 쌀과 목화를 가득 쌓아둔 창고가 즐비했다. 물금을 넘어 대동아파트에서부터 서남초등학교까지 이르는 길 이름이 ‘목화로’인

것은 이곳에 목화를 많이 심었던 데서 유래한다. 목화는 양산과 물금의 창고에 쌓여있다가 공출되어 일제의 군복이 되었다.

물금역을 통해 양산을 빠져나간 것은 쌀, 목화와 같은 물자만이 아니었다. 징용, 정신대, 학도병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양산 사람들이 강제로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물금역에서 강제 노역자로, 일본군 위안부로, 학도병으로 징집되는 아버지와 딸과 아들을 보내고 남겨진 어미의 단장(斷腸)이 식민지 근대 공간과 길이었던 물금과 물금역에 있었다.

부산명소교통도회(1929)







물금역(2002)

## 철광석과 물금역

1960년대 물금역 근처에는 물금광산이 있었다. 광산에서 채굴한 철광석은 화물기차에 실어 물금역에서 인천제철소, 포항제철소 등 전국 각지로 운반되었다. 그래서 물금역 근처로 모이고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중 가장 가까운 서부마을로도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폐광되어 사라졌지만 광산의 인부들이 정착하면서 현재까지도 살고 있어 그 때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

물금역사(1959,1980년대)



물금역 39

## 물금역의 과거와 현재

현재의 역사는 2003년에 완공한 모습으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첫 장면에서 이전의 물금역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화 되면서 달라진 옛 모습이 영상으로 계속 남아있어 다행이다. 무궁화호는 천천히 달리는 여유로운 맛에 탄다. 어쩌면 아직도 정감가는 그 모습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한편 양산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금역도 함께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물금역의 현재와 미래

현재 물금역은 황산공원으로 통하는 다리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무궁화호 14회, KTX 새마을호 3회 등 열차는 하루 왕복으로 17회 정차한다. 그러나 KTX는 평일 6~7회, 주말 8회동안 물금역을 지나지만 아직 정차를 하진 않는다. 앞으로는 KTX가 정차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편리한 이동과 더욱 활성화될 모습이 기대가 된다.

물금역(2008)



# 황산공원과 나루터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황산공원 전경

황산공원은 2015년 개장한 문화체육공원으로, 부산의 큰 생태공원인 삼락 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을숙도보다 면적이 넓다. 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의 체육 시설과 오토캠핑장, 자전거길, 낙동강 뱃길 등의 여가 시설이 만들어져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공원이 생기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고려 때부터 서부마을에 황산역이 있었고, 10여 년 전까지는 농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비옥한 토양이 낳은 모래감자와 대파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모래감자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모래감자밭과 대파밭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양산이 신도시가 되면서 시대별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도 달라졌다.



## 황산공원의 과거

황산공원이 조성되기 전 이곳은 모두 논밭이었다. 2015년에 이 공간은 공원으로 탈바꿈되었다. 물금읍이 신도시로 발전하는 와중에도 비교적 최근까지 논밭이 남아있었다.

이곳은 서부마을 사람들의 과거도 함께 남아있는 곳이다. 젊을 때 농사를 했다던 주민들은 대부분 지금의 황산공원 자리에 논밭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농사하러 나갔던 기억과 강에 나가서 놀거나 배를 탔던 기억도 함께 있어 지리적으로 일하고 살아가기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과거 물금나루, 월당나루 등 많은 나루터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는 몇몇 어업권을 가진 주민들만이 물금나루에 배를 대고 어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산공원 과거(2007)와 현재(2019)







양산 신도시 취수장

## 물금나루터

물금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물금나루, 월당나루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중 물금나루가 서부마을과 인접해있다.

물금나루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신라와 가야의 세력 다툼에서 황산하를 건너가 가야를 징벌한 이야기도 있고, 조선시대 육로와 수로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옛부터 교통 및 국경의 요충지로, 옛 황산역과 지금의 물금역이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20세기에 들어 철도가 놓이며 수운이 쇠퇴하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나루터는 서서히 잊혀졌다. 그럼에도 서부마을 어부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금나루터는 오늘날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부마을에 위치한 카페 무이 창가에 앉아 낙동강을 바라보며 과거보다는 규모가 다소 간소화되었지만 물금나루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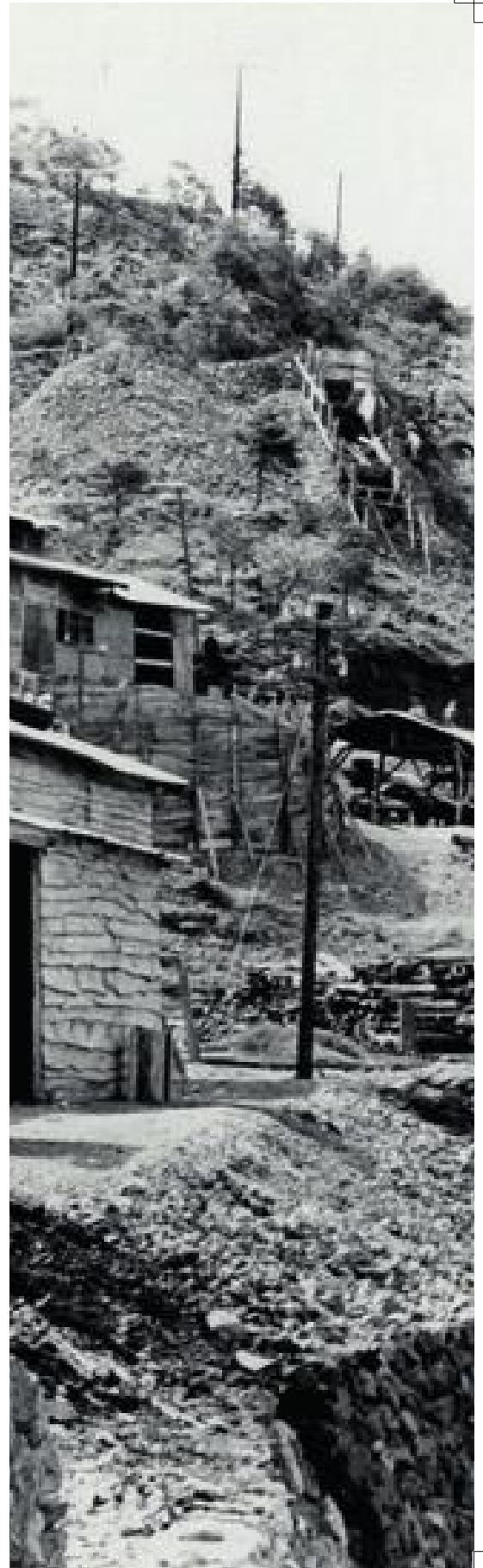
## 물금광산

출처 | 양산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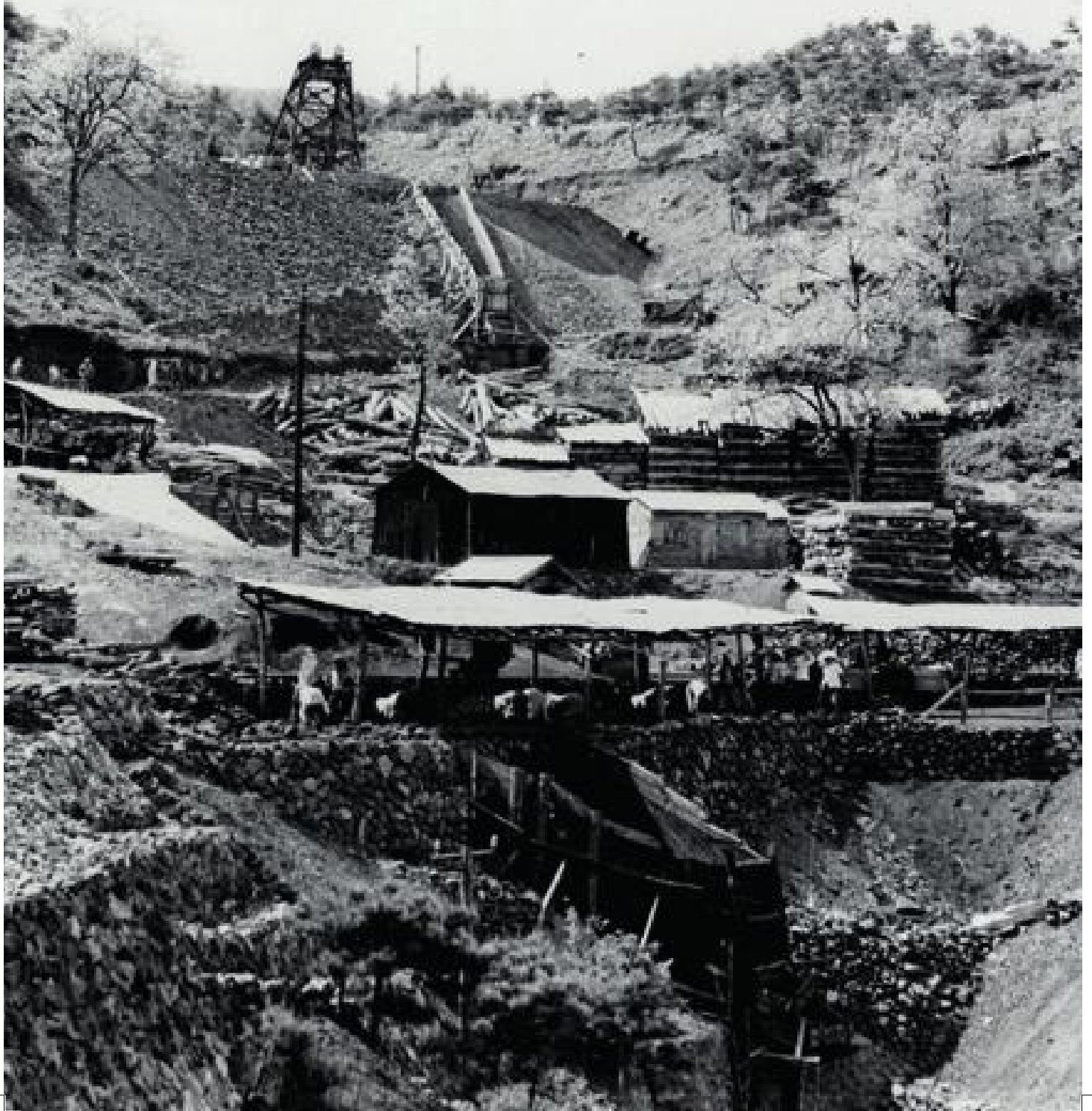
물금에서 원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임경대가 나온다. 강 건너 배랑길 자전거길과 임경대 사이에 물금광산이 있었다. 지금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물금광산에서 철광석을 생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인부들이 찾아와 일대의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물금역에서 채취한 철광석을 화물기차에 실어 전국 각지로 운반했다. 인천제철소, 포항제철소 등에 공급하다 이후에는 일본에 수출도 했다.

물금광산은 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유명했다. 당시 광산 덕분에 물금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깊이 500m, 길이가 짧게는 500m에서 길게는 2km에 이르는 갱도가 9개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생산량이 감소하고 인력이 줄면서 1992년 폐광했다. 주목받던 철 생산지에서 이후 레미콘 공장으로 변모하였으며, 현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금광산(1965)





# 서부마을의 제일 큰 어르신 당산나무

비를 내려달라, 풍년이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하늘에 빌며 기원하던  
농경 사회에서는 당산나무가  
마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래되고 큰 당산나무 아래,  
하늘에 닿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염원하는 제를 지내며  
마을을 지켜왔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당산제가 사라지거나  
축소된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도 당산나무는 마을의 큰  
중심이자 상징이다.



서부마을 당산나무 전경



서부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는 700년이 넘는 팽나무로, 식당 수정명가 옆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언제 당산나무가 되어 마을을 지켰는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옛날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던 이야기가 전부다.

예전에는 이장이 주관하여 정월대보름인 음력 1월 15일에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왔다. 당산제를 모시는 제관이 지정되면 그 사람은 그 해 일 년 내내 가족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며, 부정 타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몸을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의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가보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지켜만

봐야했던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역할을 도맡아 할 사람이 없어지자, 몇 년 전부터는 인근 사찰에 부탁해 제를 지내고 있다. 2021년 풍물패가 생기면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더불어 마을의 전통을 이어받아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지금보다 몇 배는 크고 웅장했던 당산나무는 40여년 전 벼락을 맞아 밑동이 다 부서져 버렸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아있는 나무를 잘 유지하여 마을의 역사를 지키는 게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벼락 맞은 당산나무 밑동(2022)



나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이장님과 당산나무(2022)



# 큰스님들이 거처가는 물금 포교당 반야사

서두익(79) / 원공 일진스님

물금 포교당은 통도사 말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당’이라는 뜻의 포교당은 지역마다 있으며, 그 중 물금 포교당은 1924년 일제강점기 시절 개원했다.

물금 포교당 전경 (화산3길 15-32)



## 물금포교당과 일진스님

이곳은 우리나라 큰스님 중 한 분이신 통도사 경봉스님이 살던 곳입니다. 저와는 50살 차이가 나지만 경봉스님 다음으로 제가 있습니다. 1924년 개원한 물금포교당은 통도사의 말사입니다. 말사는 본원에서 나온 분원 개념입니다. 한 지역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제에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 자리잡은 지 46년 되었습니다. 다른 절은 4년 살면 다시 임명장을 받아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서 옮겨야 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고 평생 여기서 삽니다.

일진스님



## 물금포교당과 물금역

여기는 옛 황산역 터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았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지요. 시장도 있었고 들렀다 가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위치의 장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포교당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고 나면 전국 구석구석으로 발령 받아 흩어집니다. 통도사에서 나오면 전국으로 퍼지는데 그때 이용했던 곳이 물금역입니다. 예전엔 기차가 하루에 몇 대 없으니 아침 첫차를 타려면 무조건 전날에 포교당에 와서 하루 묵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 없었죠. 유명한 큰스님들이 여기서 다 자고 갔습니다. 땅의 터가 세고 큰스님들이 거쳐 간 곳이라 이곳은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물금포교당 내부





## 마을을 지키는 이무기

어느 날은 천둥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 이상해서 창문을 열어 내다봤더니, 큰 가방만 한 구렁이 두 마리가 귀가 선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팔만대장경에는 몸통이 뱀, 머리가 사람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기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도랑을 지키는 이무기인 것이지요. 그때 본 뱀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내 눈에만 보이고 오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마라. 일반 사람들은 기겁할 테니. 저쪽 뒤로 가서 안식을 취해라.”

그 뒤로는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처 골목에서도 조그만 뱀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다 잡아먹어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똑바로 보고, 행하는 것

눈은 가로로 찢어졌지만 보는 것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사, 인간사 모든 사물을 바로 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바로 보았으면 이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순박하고, 진실하고, 명백하고, 청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진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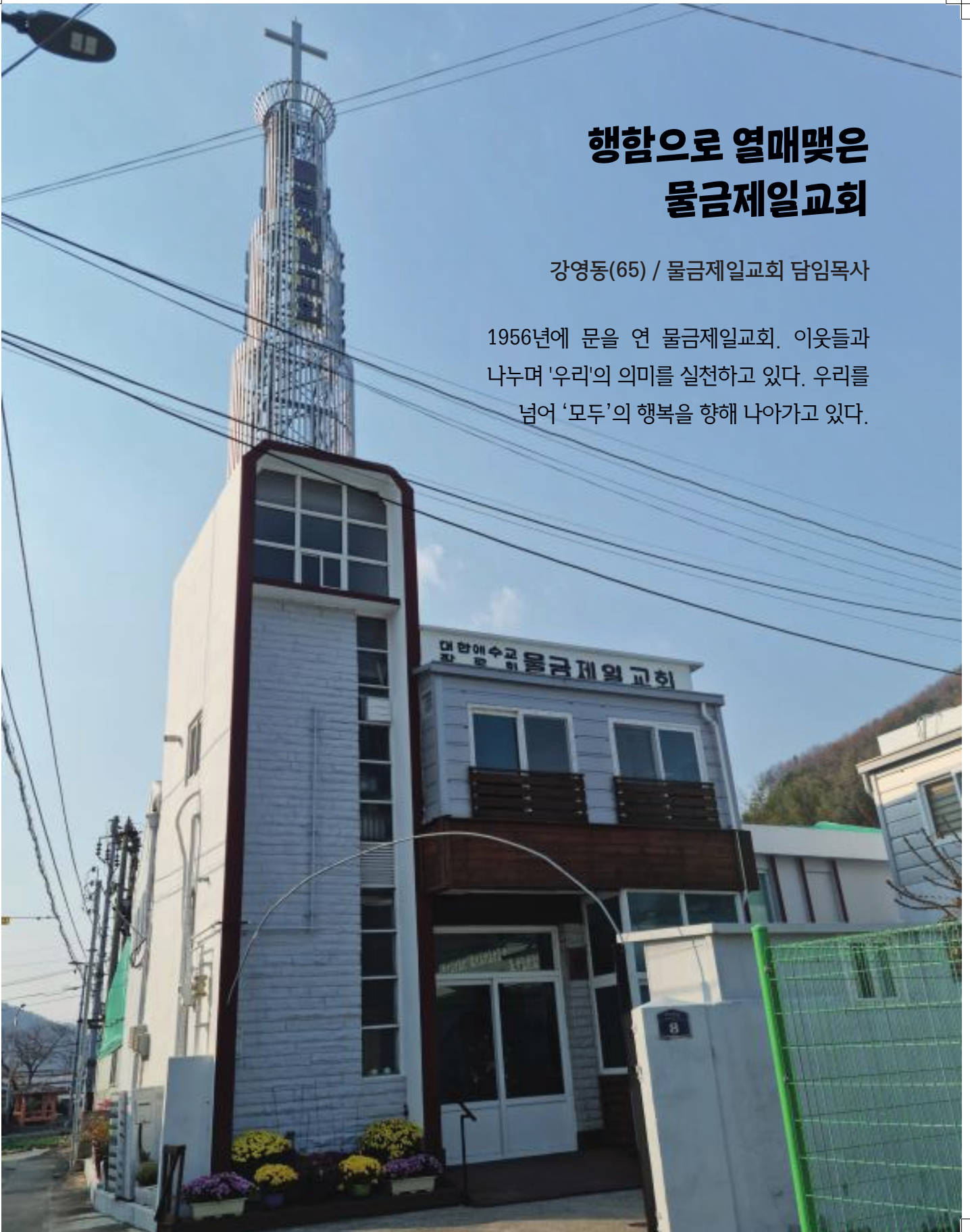




# 행함으로 열매맺은 물금제일교회

강영동(65) / 물금제일교회 담임목사

1956년에 문을 연 물금제일교회. 이웃들과 나누며 '우리'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를 넘어 '모두'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70년 역사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1956년도 설립되어 지금 7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성도가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차가 있어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십니다. 120~1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있고 촌인데도 청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17년 됐습니다. 목회는 이곳이 처음이고, 담임 목회 역시 처음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 저는 수산대를 졸업하고 원양어선 선장 일을 하다가 37살에 크게 아프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일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목회 시작이 늦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의미

저도 주민이지만 목사이기에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서부마을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을 경로당에 매일 나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인사를 너무 잘하니 선거 나가냐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처음 서부마을에 왔을 때는 친해지려고 전을

다 같이 나눠 먹을 만큼 많이 해서 찾아가고,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모두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주십니다.

어느 날은 부산에 불일이 있어 나갔는데 우리 주민분을 마주쳤습니다. 너무 반가워 인사를 했더니 제 일행이 성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냥 주민분인데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빵 100개, 라면 100상자를 마을에 전달하고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더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모두가 함께 하는 하루

우리 교회는 일년에 한 번씩 하는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출석하는 주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온 마을 주민들이 다 교회에 오십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주민도 저와의 교류가 있으니 하루는 와 주십니다. 다른 종교라고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다같이 잔치를 즐깁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겠지요. 총동원 주일에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나누고 베풁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 그 자리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근처 학교에 졸업식이 열리면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복한 것이 가장 우선이고, 서부마을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일 겁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교회에 나오시면 그건 더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교회가 제일 편하고 좋아서 어디 안 나가고 항상 교회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찾아오셔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가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아직 코로나 시기라 제가 예전처럼 경로당에 매일 가지 못하니 다들 오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 생각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언젠가 하기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외면보다는 내면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성도가 많아진다면 그 때 새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담임목사 강영동





## 전국 명소로 거듭나는 서리단길

과거 이 일대는 물금면사무소와 물금역 물금시장 등이 있는 중심지역이었지만 신도시 조성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도심 속 섬처럼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젊은 감각의 세련된 식당, 소품상점, 공방, 카페 등이 들어섰다.

소문을타고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며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떠 '서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는 '경리단길', 경주에는 '황리단길'이 있다면 양산에는 '서리단길'이 있다고 계속 회자될 정도로 새로운 문화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낡고 해진 옛스러운 골목길과 더불어 아기자기한 상점과 맛집으로 소문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리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양산의 필수 데이트코스가 된 서리단길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리단길의 서부마을 시작점



금강쉐르빌 앞 도로표시



서리단길 안내판



공영주차장 앞 방향표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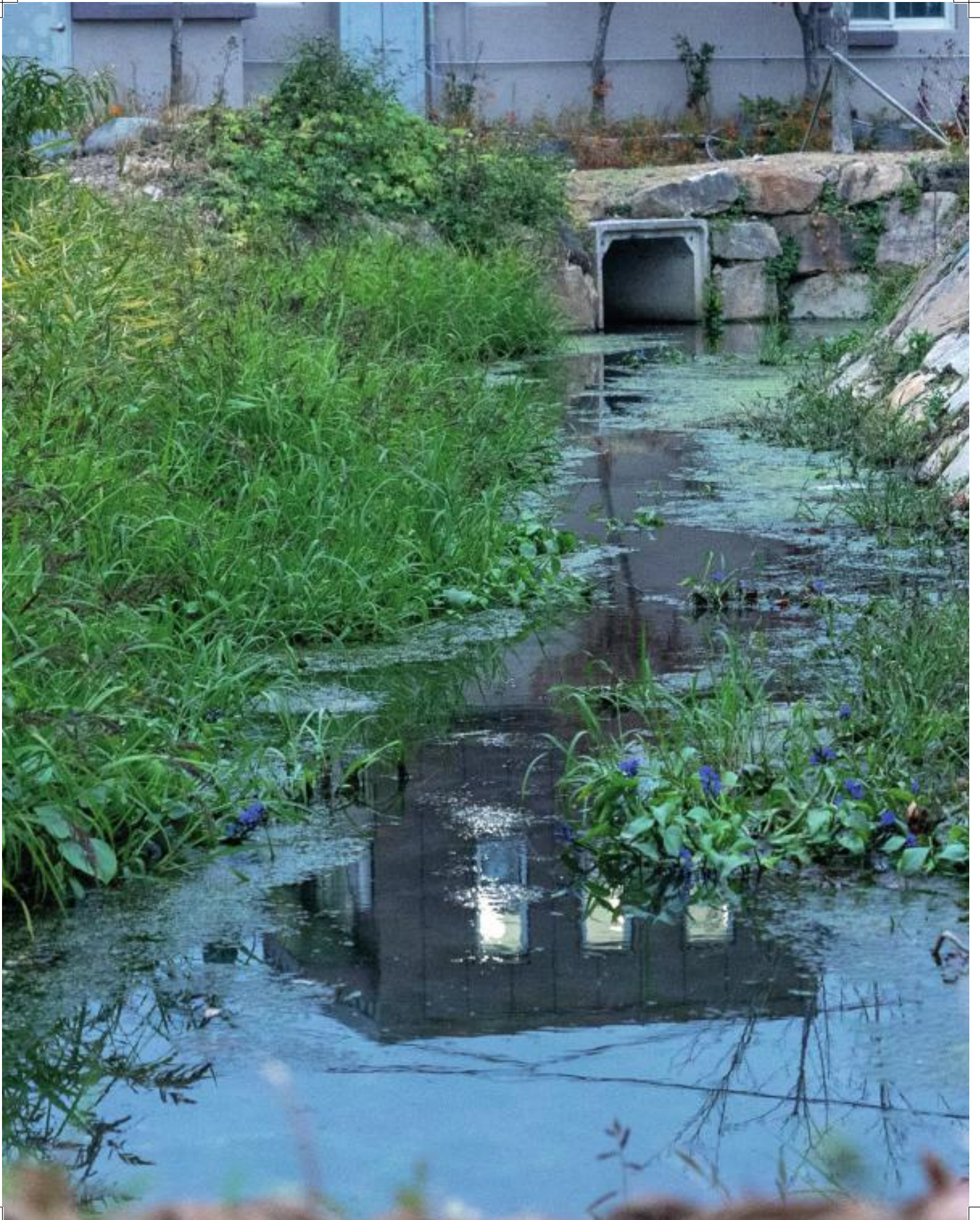
순수알곡 앞 교차로



공영주차장 앞 안내판











# 3

## 함께한 추억을 기록으로

서부마을 풍물패	60
서부마을 축제와 황산장터	64
서부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74



# 함께여서 즐거운 서부마을 풍물패

어느 날 마을의 초청공연을 보게 된 주민들!  
우리도 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된  
풍물패 동아리. 서부마을 풍물패 탄생 과정을  
들어보았다.



서부마을 풍물패

<b>회장</b>	유순자(73) / 장구	<b>북</b>	양춘자(60)
<b>부회장</b>	우순자(74) / 징	<b>장구반장</b>	김영신(61)
<b>총무</b>	박영옥(65) / 장구	<b>장구</b>	배태희(70) 송경순(61) 김종임(70)
<b>고문</b>	김종순(76) / 장구		이재신(66) 박봉남(71) 이숙란(71)
<b>강사</b>	김정애(72) / 팽과리		이정희(53) 이운덕(66) 이강숙(63)
			박춘자(73) 김인자(68)

## 풍물패의 시작은 우리!

양춘자(60) / 박영옥(65)

2020년쯤 서부마을 조롱박 축제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풍물패가 방문하여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포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풍물놀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버스에 탔던 김정애 선생님께 ‘우리도 풍물놀이 하자’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가르쳐주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는데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즐겁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10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8명이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연으로 기금이 모이면 마을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운영비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냥 집에서 시간 때우고 가만히 있었겠지요? 시초가 되었다는 게 뿌듯합니다.

## 외부 강사가 아닌 주민 선생님!

김정애(72)

저는 이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결혼도 여기서 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외부 단체에서 풍물놀이 활동을 한 기간이 40년이 넘습니다. 단장도 해봤고요. 그걸 알고 있던 몇몇 분들이 가르쳐달라고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 테니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만큼 번창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회원들도 늘고 다들 잘 따라주니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장이 협소하여 회원을 증원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다 보니  
지금은 18명이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부마을 풍물교실





서부마을 풍물패

## 지칠 땐 내가 분위기 메이커!

이재신(66)

저는 성격이 급해서 “다다다다” 말합니다. 다들 저를 분위기 메이커라고 불러줍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수위의 에피소드도 참 많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다라이(대야)를 발로 차기도 하고, 다들 웃겨 넘어갑니다. 그래서 풍물패가 조용할 날이 없나 봅니다.

## 풍물패 왕언니, 경력도 최고

김종순(76)

제 파트는 장구인데 사실 민요 장구는 12년, 사물 장구는 25년 쳤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취미였지요. 마을에 풍물패가 생겨 이 나이에도 계속 칠 수 있어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경로당에 갈 나이인데 경로당에 안 가고 연습실에만 주야장천 앉아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문화생활이 최고!

## 풍물패 약방의 감초, 최고의 일꾼

송경순(61)

저는 말이 많거나 시끄러운 스타일은 아닌데 부르면 바로 달려옵니다. 언니들이 저를 약방의 감초라고 합니다. 아마도 꼼꼼하고 묵묵한 성격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 할 때 빠지지 않기도 하고요. 마을 형님들하고 모여서 배우고 이야기하고 웃고 나눠 먹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추억

정월대보름에는 거리에 나가서 풍물놀이를 하는데 마을 끝자락까지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이렇게 큰 행사는 일 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풍물은 집마다 다니면서 액운을 물리쳐주는 역할도 하지요.

황산장터에서는 매달 풍물 공연이 있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후에 모여 연습하는데, 처음 배울 때는 계속 틀려서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들이 모두 추억이네요. 아무것도 안 맞다가 장단을 맞춰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제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같이 있다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초기 멤버들이 풍물을 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보여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단합도 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자 추억입니다.

서부마을은 공기도 좋고 자연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면 기분이 상쾌하고 편안합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고 뭐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풍물패 공연사진



풍물패 공연 후



## 서부마을 축제와 황산장터



황산장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탄생한 것이 서부마을 축제다. 소공원과 박터널이 조성되고 나서는 마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주민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2021년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우물사업에 선정되어 조롱박 문화마당 축제를 진행했고 2022년부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황산장터를 열었다. 먹거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12월 겨울부터 잠시 쉬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재개할 전망이다.





조롱박 축제 포스터



조롱박 문화마당 축제 포스터



황산장터 1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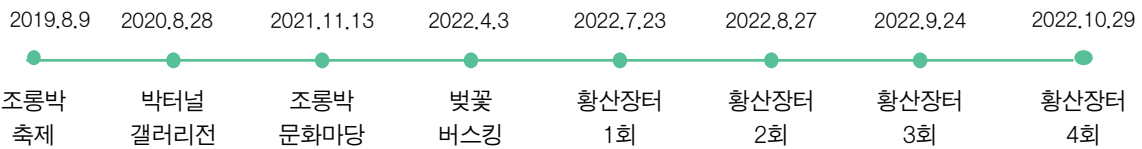
황산장터 2회 포스터



황산장터 3회 포스터



황산장터 4회 포스터





서부마을 주민들은 2018년부터 매년 5월이 되면 마을 활성화를 위해 박터널을 조성하여 가꿔나가고 있다. 2021년 열린 조롱박 문화마당에서는 박터널에 주민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공유하고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했다. 또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구성해 화합의 장이 됐다.

조롱박 문화마당 풍물패(2021)







조롱박 문화마당 베랑길 정원 무대(2021)

조롱박 문화마당 라이브 드로잉 공연(2021)



조롱박 문화마당 베랑길 정원 무대(2021)





조롱박 문화마당 조롱박 기차 전시(2021)\_200명의 초등학교 학생 작품전시



조롱박 문화마당 배랑길 정원 입구(2021)\_주민이 직접 제작한 작품







조롱박 문화마당 조롱박 꾸미기 체험(2021)

조롱박 문화마당 행사가 열린 공간은 2020년까지 마을 내 유희 공간으로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이 합심하여 1년간 노력해 '마을 주민이 가꾸는 정원'으로 변신했다. 마을 정원에서 물금 기차길 국수를 먹는 모습이 SNS에서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조롱박 문화마당 조롱박 꾸미기 체험(2021)



황산장터 1회는 한여름에 개최되어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물총놀이를 준비했다. '서부 물총잡이'라는 부제로 첫 행사를 잘 마무리했으며 앞으로의 황산장터가 기대된다.

체험부스 운영(2022)



부침개를 굽는 주민들(2022)



고향이 그리워 황산장터를 찾아온 옛 마을주민(2022)







황산장터 1회 봉사단과 함께(2022)

휴가기간 동안 황산장터를 체험한 일본에 거주하는 옛 마을주민과 손주(2022)



서부마을 축제와 황산장터 71



황산장터의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되었다. 3회차에는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롱박 벽화를 그리는 체험을 진행했다. 4회차 행사에서는 음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구성이 점점 자리 잡혀가고 입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 겨울 휴식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3년 봄부터 다시 개최하고자 한다.

황산장터 3회 전경 및 단체사진(2022)



초등학교생들의 벽화체험(2022)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2022)



통기타 동호회 버스킹(2022)

천연염색 전시(2022)



서부마을 축제와 황산장터 73



## 서부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수자 사랑방에 모여라

이수자(82) 김두수(78) 배경연(89)

서부마을에는 수자 사랑방이 있다. 언제나 이곳에서 함께하는 단짝 친구 삼총사. 이들의 소소한 행복은 수자 사랑방에서 만들어진다.

수자 사랑방에서



74 함께한 추억을 기록으로





지구당 여성회장 연수(1992)

## 수자 사랑방 삼총사

### 이수자(82)

결혼 후 큰아들을 낳은 뒤, 서부마을에 온지도 벌써 56년째입니다. 부녀회장, 경로당 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이걸 다 언제 했는지 기억은 안나고 그만큼 마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 김두수(78)

21살에 서부마을로 시집왔습니다. 직장이 부산에 있어서 매일 기차타고 출퇴근했습니다.

### 배경연(89)

원래는 동부마을에 살았습니다. 산책 겸 서부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다보니 친구가 너무 좋아서 17년 전에 서부마을로 이사왔습니다. 물금제일교회도 가깝고요.

“경로당은 보통  
오후에 많이 모이고  
오전에는 소수로  
집에 모여  
놀고는 합니다.”

## 사랑방 주인의 끝내주는 요리 솜씨

### 이수자(82)

17년 동안 연탄 장사를 했습니다. 농사짓는 것이 싫어서 서부마을에 왔고 점방, 부식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연탄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고생만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먹고살 만은 했습니다. 리어카 몰고 배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녀회장, 경로당 부회장 하면서 봉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주로 음식을 맡아서 했었죠. 마을 행사에서 끓였던 추어탕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레시피를 묻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소고기국밥도 자주 했었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힘들어서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회관에 40명씩 모여 같이 밥을 해 먹고 북적였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적어서 아쉽습니다.

주민 레시피로 끓인 황산장터 추어탕



## 기차길과 제일 가까운 집

### 김두수(78)

옛날 그 위치 그대로 57년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이 기차길과 제일 가까운 집입니다. 언덕에 있어 제일 잘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방음벽이 설치돼서 조금 낫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건너다니는 건널목밖에 없어 기차 소리가 그대로 집까지 들렸습니다. 요즘은 무궁화여도 그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는데 옛날의 완행열차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서 잠을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은 태풍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2명이 죽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떠내려간 집이 우리 옆집이어서 사고는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이후로 이쪽이 재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서 온 동네가 필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도랑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 사람들이 다 같이 치우고 청소하고, 군인들까지 투입됐었습니다. 위에 국도가 붕괴하면서 물이 덮쳐 그렇게 된 것이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엄청 아찔해요.

## 삼총사의 바람

### 이수자(82)

우리 마을과 서리단길 모두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두수(78)

다 잘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어디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큰 찜질방 하나 생기면 할매들 줄 서서 다닐 것 같습니다.

### 배경연(89)

사람 좋고 공기 좋아 이사 왔으니 그냥 그대로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 갈 겁니다.

수자사랑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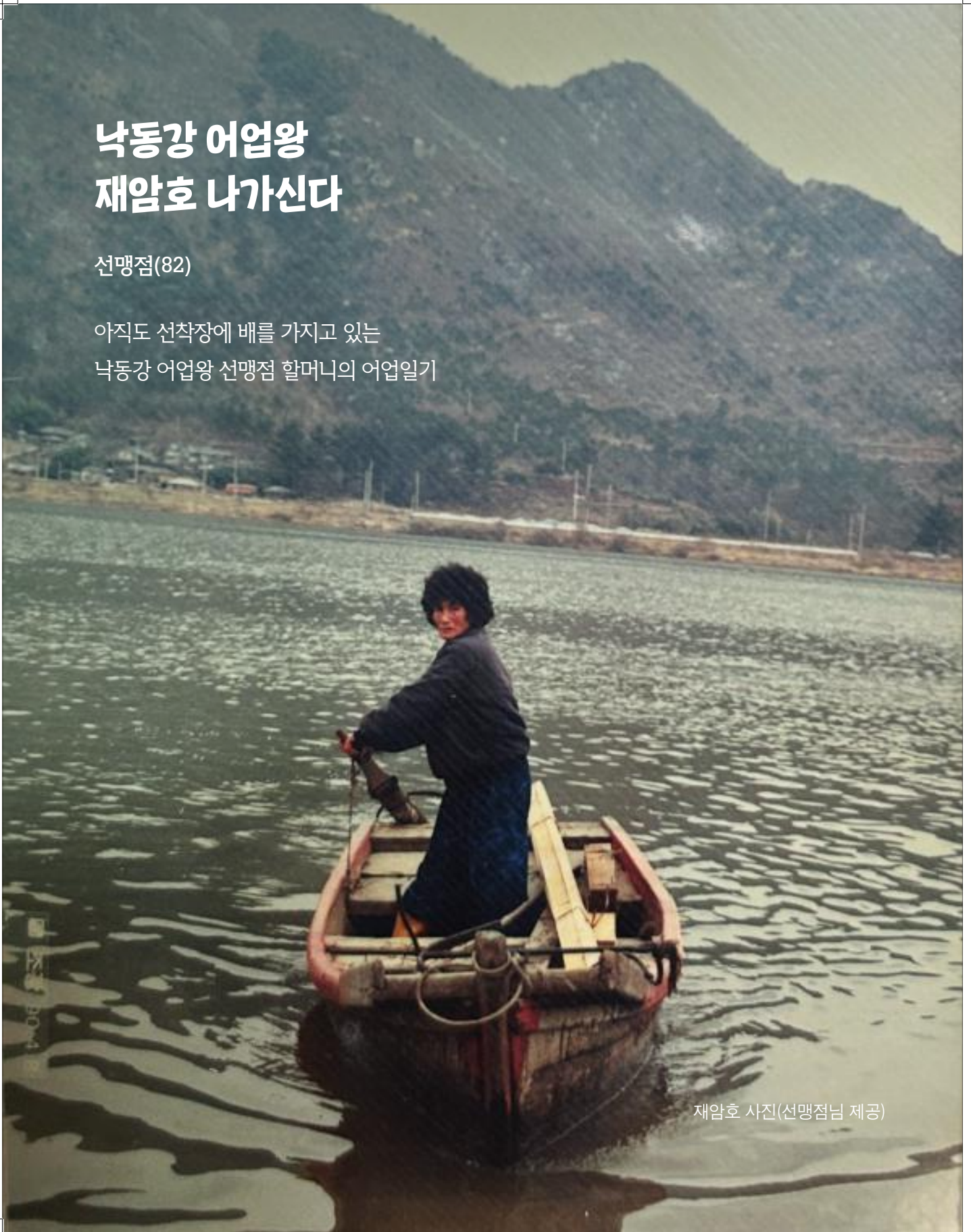




# 낙동강 어업왕 재암호 나가신다

선맹점(82)

아직도 선착장에 배를 가지고 있는  
낙동강 어업왕 선맹점 할머니의 어업일기



재암호 사진(선맹점님 제공)

## 힘 쓰는 일도 직접 다 했던 젊은 시절

1965년 시집오면서 물금에 왔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낙동강에서 자망(그물)치고 통발도 던져 남편이랑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어종은 계절별로 다양하게 잡아서 장에 팔거나 상인이 가져가곤 했습니다. 보통 어업은 바다를 많이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낙동강도 깨끗해서 배 타고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배와 그보다 조금 큰 나무배가 있었죠. 요즘처럼 모터가 달린 게 아니라서 노를 직접 저어야 했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건 남자가

하기 마련인데, 그때는 사람을 한 명 더 쓰자니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제가 직접 노를 저어 다녔습니다. 심지어 큰 배도 제가 다 몰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했나 싶습니다.

어느 날은 인도라는 친구가 노를 저어보겠다고 해서 시켰더니 도저히 무거워서 못 하겠다고 금방 다시 노를 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웠는지 나도 하는걸 못하냐고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 배 두척(1990)







재암호에서(1990)

## 서부마을로 오기까지

현재 취수장 자리 맞은편에는 유일하게 집이 세 가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집에 살았습니다. 집 바로 앞은 철길이었고, 당시에는 육교나 건널목이 없어, 그냥 철길을 무단횡단하며 다녔습니다. 강에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유일했습니다. 취수장이 조성되면서 집도 철거되어 지금의 서부마을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취수장 부근 모래밭에서는 재첩이 아주 많아서 재첩도 잡아서 팔았었는데 하굿둑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막히면서 재첩도 사라졌습니다.

재첩뿐만 아니라 소라, 고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지요.

## 사계절, 24시간이 모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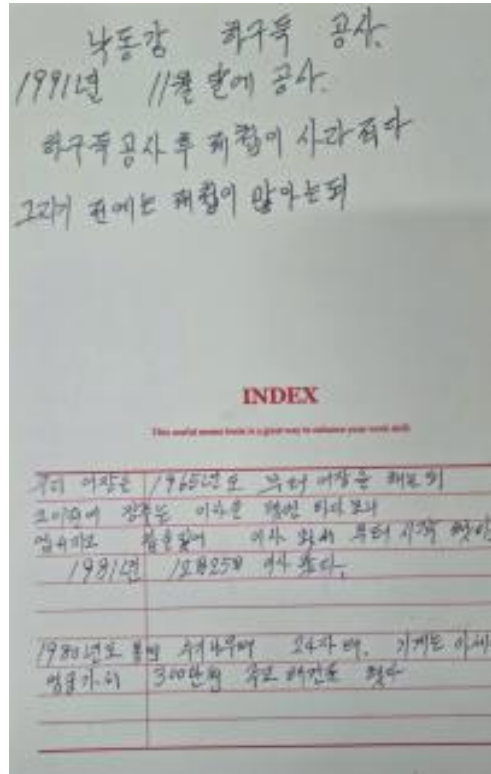
통발로는 장어, 새우를 잡았습니다. 특히 장어는 주문이 들어오는 것만 팔아도 다 팔릴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오후 6시에 나가 그물을 치고 나면 새벽 1시에서야 들어왔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 잡고 들어오면 구포 상인이 와서 도매로 사 가기도 했습니다. 웅어, 송어,



붕어, 잉어는 다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런 종류는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나가 7~8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리가 고개 숙일 때 올라오는 고기’라고 해서 보릿고개 웅어가 물금에서 유명했습니다. 송어는 다라이(대야)를 이고 부산진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자갈치시장에 가면 할매 상인이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종마다 잡고 파는 방법이 달라 24시간 신경을 써야 했었지요.

1981년도부터는 얼마나 잡고 얼마에 팔았는지 장부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장부에 적힌 게 있으니 그 때까지 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업일지 중 일부 1

어업일지 중 일부 2

2. 14	9x	0x	3. 14	10x	5x	4. 10	50x		계	2x 8100원	8 26000원
2. 15	10x	4x	3. 15	1x	2x	4. 11	450x		계	2x 1900원	8 52200원
계	48x 관	1600원	계	48x 관	11x 관	5. 11	450x		5. 11	3300원	
8	142000원	20000원	8	148000원	55000원	5. 12	320x	계 3000원	5. 12	490x	800 1500원
2. 19	10x 관	5x 관	3. 14	6x 관	3x 관	5. 13	270x		계	4x 9200원	8 529000원
2. 18	10x	4x	3. 15	1x	2x	5. 14	300x	계 200x	5. 14	3400원	원 1300원
2. 21	12x	2x	3. 16	4x	3x	5. 15	300x	계 200x	5. 15	4400원	원 2200원
2. 23	12x	2x	3. 19	7x	2x	5. 16	300x	계 200x	5. 16	4400원	원 2200원
2. 24	9x	3x	3. 18	12x	2x	5. 17	300x	계 200x	5. 17	4400원	원 2200원
계	16000원		3. 19	9x	1x	5. 18	300x	계 200x	5. 18	4400원	원 2200원
8	89000원		계	50x 관	10x 관	5. 19	300x	계 200x	5. 19	4400원	원 2200원
2. 23	8x 관	2x 관	8	150000원	65000원	5. 20	300x	계 200x	5. 20	4400원	원 2200원
2. 26	8x	2x				5. 21	300x	계 200x	5. 21	4400원	원 2200원
2. 27	12x	3x	3. 21	10x 관	2x 관	5. 22	300x	계 200x	5. 22	4400원	원 2200원
2. 28	10x	2x	3. 22	9x	2x	5. 23	300x	계 200x	5. 23	4400원	원 2200원
계	39x 관	9x 관	3. 23	9x	7x	5. 24	300x	계 200x	5. 24	4400원	원 2200원
8	117000원	45000원	3. 24	10x	2x	5. 25	300x	계 200x	5. 25	4400원	원 2200원
			계	36x 관	9x 관	5. 26	300x	계 200x	5. 26	4400원	원 2200원
			8	108000원	45000원	5. 27	300x	계 200x	5. 27	4400원	원 2200원
5. 7	10x 관	2x 관	3. 25	9x 관	9x 관	5. 28	300x	계 200x	5. 28	4400원	원 2200원

이제는 나이도 들어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으면 다들 헐값에 가져가려고 해서 안 팔고 있습니다. 잘 팔릴 때 팔아버릴 걸 아쉽기도 합니다. 마을에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일 5~6명뿐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배가 오래됐지만 힘이 좋아 아직도 멀쩡하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선착장에 가 배가 잘 있는지, 잘 나가는지

확인하러 가봅니다. 타고 나가보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배에 묶인 줄이 끊어져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가 정리하려니 아쉽습니다. 비가 와서 배를 확인해보러 나갈 때 이제는 위험하니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도 합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재암호를 잊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집 담벼락 앞에서 (1990)









# 다시 돌아온 고향, 제재소집 아들 낙동국수

남성우 (54) / 낙동국수 사장님



## 제재소집 아들

현재 금강셰르빌이 들어서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제재소였고 아버지가 운영했던 공장이었습니다. 마을에 그런 공장은 그곳 하나뿐이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들어 포장재가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고 건축자재가 값싼 중국제로 바뀌니 1990년대 초에 제재소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물금초등학교에 다닐

때 겨울에는 교실에 난로가 있었는데 땀감이 필요하니 학생들이 단체로 솔방울을 주우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꼬맹이들이 그러고 있는 게 안타까웠는지 큰 트럭에 나무 땀감을 실어 학교에 기증해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어깨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다시 돌아온 고향

저는 물금을 떠나 살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시절을 서부마을에서 보내고 20대부터는 나가 살았지만 그래도 물금 안에는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기 전에는 전공따라 법률사무소에 다니다 이후에는 자동차 무역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이어들과 왕래가 안되니 언젠가 나이가 들면 국수집을 해야지 했던 꿈이 조금 일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국수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끓여보고 내어주면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해서 용기내 다시 서부마을로 돌아와 2021년 7월부터 낙동국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살던 곳이라 정이 들기도 했지만 신도시 나름대로의 주거환경이나 인프라도 괜찮고 옛 추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 더욱 떠나기 싫었습니다.

## 낙동국수의 인기 비결

옛 시장이기도 하고 서리단길 옆이기도 해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습니다. 지나가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방식으로 조리하는 곳이 잘 없어요. 시판 육수를 사와서 대량으로 끓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낙동국수는 멸치, 디포리 등으로 신선한 국물을 직접 우려내는 것이 비법입니다. 또 제가 힘이 들어도 추억이 깃든 고향 마을에서 좋아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깐 시간이 금방 가기도 합니다. 동네 선후배도 손님으로 보고 하면 참 재밌습니다.

## 모든 것이 있는 서부마을

살면서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이 넘치고 세련미가 있는 곳, 나날이 발전하는 곳, 추억을 간직한 곳, 창조적인 곳. 이런 마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금 일찍 찾아온 꿈을 이루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 80년대 물금 광부, 그때 그 시절 속으로

강병화(62) / 수궁횃집 사장님, 청년회장

마을에는 서리단길이 조성 되면서 외부인들이 만든 새 점포가 많이 형성됐다. 하지만 수궁횃집은 사장님 부부가 마을 주민이면서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궁횃집에서 그 시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광부로 시작한 20대

어릴 때 대전에 있다가 10대에 물금으로 왔습니다. 이곳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땐 대학 진학을 많이 하던 때가 아니라서 보통 성인이 되면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취업해야 했는데, 갈만한 곳이 물금 철광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관찰은 직장은 타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였죠. 제가 일했던 파트는 운반 쪽이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철광석을 물금역으로 날라 기차에 실었습니다. 그때 월급이 13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세 5만원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요.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지요. 5년 정도 일을

하고 90년대에 폐광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채석장을 발파하려면 엄청나게 큰 돌을 깨야 하는데 그게 잘 안 깨지면 사람들이 직접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 깨야 합니다. 보통 두 명이 한 조로 다녔어요. 그날은 제가 먼저 뒤에 나와 있고 파트너가 불을 붙이면 재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30초 전후로 빨리 피해야 하는데 불을 붙이고 내려오다 돌에 팔이 끼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기였습니다. 심지를 빼서 던져 겨우 나와 살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돋을 정도로 아찔합니다.



“복적복적한 것을 보면  
우리 서부마을의 밝은 미래가 그려집니다.”



강병화 부부

### 광부에서 횃집 사장으로

광산에서 일하다 갑자기 횃집이라니 좀 이상하지요? 바로 하게 된 건 아니고 광산을 그만두고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잠깐 하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매형이 횃집을 하고 있었는데 매형한테 배워 식당을 같이 했습니다. 물금이 신도시가 될 때쯤 먼저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새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처음 그 자리 그대로 30년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부마을 러쥬대감 상인

저렴하게,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게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잠시 자랑하자면 보통 회를 시키면 식사로 매운탕은 따로 시켜야 하는데 저희는 식사를 다 포함한 메뉴가 기본이고 배불리 먹어도 부담 없을 정도입니다. 아내와 둘이서 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사람이 복적복적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주인으로서, 또 장사하는 상인으로서 우리 서부마을이 더 젊고 활기찬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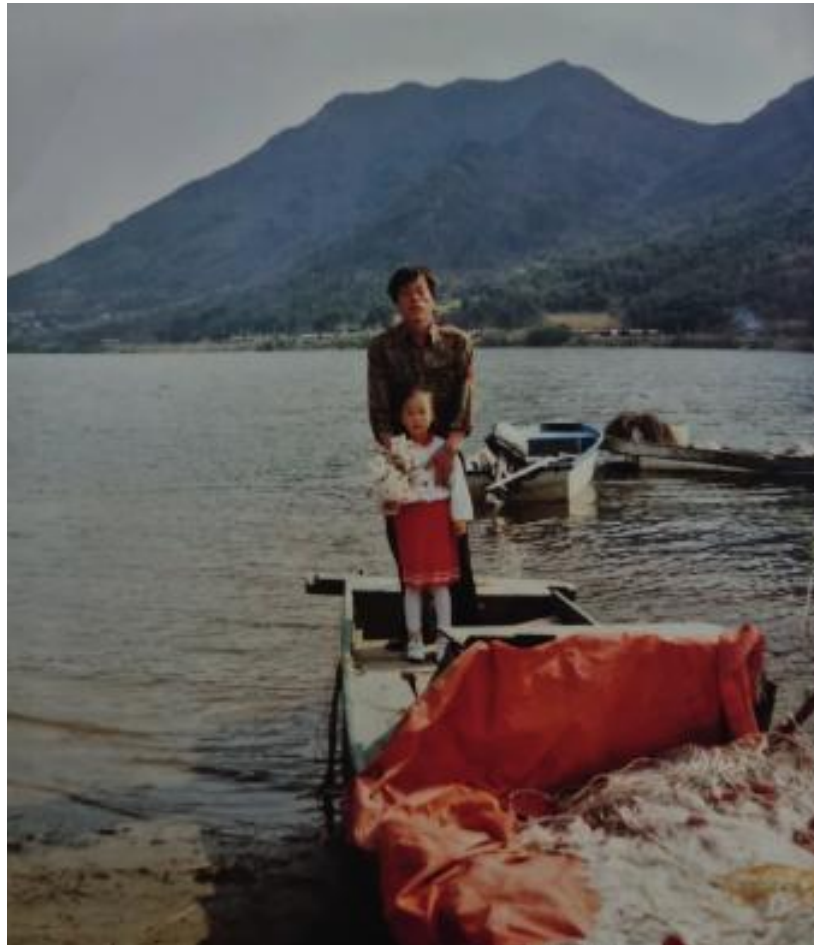
# 10살부터 봤던 나의 물금호 이야기

구동이(64) / 자경이횃집 사장님

어부에서 횃집 사장으로 인생의 변화를 겪은  
서부마을 토박이.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맞이한 그의 이야기다.



28살 구동이, 물금호



딸과 함께 (1993.4.8)

## 나의 물금호 이야기

지금까지 서부마을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10살 때 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 타고 고기 잡고, 팔러 가면 졸졸 따라다니며 같이 팔았습니다. 배 이름은 물금호입니다. 아직도 배가 있고 지금도 어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고기 잡았던 기억뿐입니다.

83년도에 결혼해서 계속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줄낙시로 장어 잡고 그물로 잉어, 붕어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고 팔러 다녔습니다. 옆집에 살던 신맹점 할머니도 종종 마주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했으니 제가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요?





구동이

## 자경이 횃집

2000년대 들어와 고기가 잘 안 잡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물금시장 안에 있었고 나중에야 지금의 자리인 물금역 앞으로 옮겼습니다. 잉어, 가오리를 주로 취급하는데 여름이 제철인 새우, 게, 장어는 직접 잡아서 판매합니다. 이제는 오래되어서인지 외지에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고기와 함께하고 있네요.

## 새로움을 맞이하고 변화할 준비

서부마을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마을입니다. 친구들은 다 나가서 저만 남았습니다. 자꾸 고령화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발전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닫고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더디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면 발전은 됩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큰 바람은 없습니다.

# 80년 전통 수제 막걸리 물금 막걸리

김민성(51) / 물금막걸리 대표



물금막걸리 전경

## 물금막걸리의 시작

1941년도에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기찰에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양산에 넘어왔습니다. 남부시장 앞에 주조장이 있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금역에 물건을 보낼 일이 많아졌고, 이 근처에서 거래가 많아 1960년대에 서부마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1974년에 지어서 정착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3살이었지요. 물금막걸리의 이야기는 저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입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어 손으로 다 빚어야만 했습니다. 많이 생산하려면 온 가족이 달라붙어야 했죠. 저는 18살 때 이 일에 합류했습니다. 제조 방법도 익히다 보니 가업이자 생업인 물금막걸리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유지하는 수제 공법

제가 이 일을 온전히 하게 되면서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옛날보다는 손이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기계에 다 맡기지 않고 수제로 제조해 공정 과정 하나하나, 재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맛으로 경쟁하며 지금까지 물금막걸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졌기도 하고 벌써 33년째라 즐기면서

하자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능률도 오르고 재미도 있고 매출도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많이 생산하다 보면 술이 새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초기에 제가 일이 익숙하지 않을 때 누군가 막걸리가 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응이 미숙해서 곤란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니 그런 반응에도 대응하고 혼자여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김민성



“ 저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물금막걸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우리 물금막걸리가 최고

물금막걸리는 전통 수제 생막걸리를 고집하며 품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재료도 국내산 쌀과 올리고당을 사용해 목 넘김이 부드럽고 달콤하며 좋은 향이 납니다. 생막걸리라 유산균도 많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살균 막걸리는 상업적인 면에서 수익성은 좋지만, 생막걸리에 비해 좋은 유산균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수제 생막걸리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또, 올봄에 출시한 신제품이 있습니다. 사과 농가와 상생협력하여 만든 사과 막걸리입니다. 젊은 층에 맞게 맛을 가볍게 응용하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막걸리도 좋지만, 사과 막걸리가 요즘 최고 인기입니다.

## 전국으로 뻗어 갈 물금막걸리

물금막걸리를 타지에 판매하지 않고 양산 내에서만 공급했었습니다. 80년 전통으로 3대째 내려오면서 이제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4대 째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부마을과 서리단길의 맛집도 가고 주조장도 방문해보는 관광 코스가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들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걸리와 서부마을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는 그 날까지 노력하는 물금막걸리가 되겠습니다!”

물금 사과막걸리



# 서부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골목집

심명순(66) / 물금골목집 사장님

서부마을과 서리단길에 다양한 식당이 생겼지만, 서부마을 식당 터줏대감은 '골목집'이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베푼 만큼 돌아오잖아요.  
저만의 방식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손님을 맞이합니다.”

## 물금골목집의 시작

우리 식당은 1996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새 길이 나기 전이라 이런 건물도 아니었고, 기와집이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은 바로 앞에 있지만 옛날에는 기차길 옆 막다른 길 쪽에 주차하고 여기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마을에 식당이 없었습니다. 물금 시장까지 나가야 먹을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78년도에 서부마을로 시집오면서 식당이 없는 게 생각나 ‘내가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죠. 지금은 남편과 아들이랑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영원히 서부마을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어 그만하자고 하는데 저는 손님들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마을이 너무 좋습니다. 산, 강이 다 보이고 공기 좋은 마을이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다시 집에 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집오면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여기가 다른 데서는 못 살 것 같아요.

## 오래된 단골 손님

우리 집이 오래된 만큼 단골 손님들도 다들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를 따로 배운 게 아니라 원래 제 음식 솜씨입니다. 수육, 전골, 삼계탕 등 메뉴를 가리지 않고 항상 찾는 손님들은 꾸준히 찾습니다.

옛날에 어떤 손님이 배가 고프다고 해 들어오면 돈을 안 받고 그냥 내어준 적도 있습니다. 식은밥은 내가 먹더라도 손님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하시고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베풀고 정성껏 음식하고, 또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방식입니다.



# 추억 속 시장거리에서 미래를 그리다

김금옥(66) / 물금복집 사장님

## 어머니가 생각나는 고향

저는 29살까지 이곳에 살다가  
외지로 나갔습니다. 2019년 3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복어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어머니께서  
가게를 했던 게 생각나서 2019  
년도부터 복집을 운영하게 되었  
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운영  
해오셨던 국밥집을 다시 하려고  
생각했는데 국밥은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복집을 열기로  
선택했습니다.



## 앞으로의 바람

물금복지집 전경

서리단길 쪽은 저녁이 되면 아직도 어둡습니다. 또 아직 옛날 가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리단길의 구옥들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가로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조금 더 완화되어 구옥도 보존하면서 바뀐 모습이 소문나서 거리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마을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 보물동네에 정착하다

유명숙(59) / 수정명가 사장님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대박나면 더욱 좋지만  
최우선으로 마을 주민들과  
지금처럼 잘 지내고 싶습니다."

## 마을 정착기

재래시장을 구경하려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마을을 자주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식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니다보니 한산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19년도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과 고기 유통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고깃집을 하게 되었고 좋은 고기를 가져온다는 건 우리집의 자부심이지요.

## 기억에 남는 손님

여긴 어르신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바쁠 때 밀리면 짜증낼 수도 있는데 항상 관찮다, 천천히해라고 말씀해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또 너무 바빠 정신이 없을 때는 직접 가지러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겹고,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나요?

저는 이 마을에 살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성껏 내 마음을 담아 음식을 하다보면 맛있다,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손님들 덕분에 코로나 시기를 버티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다보면 뿌듯하고 좋습니다. 또 바쁘게 일하다 창 밖을 보면 싱그러운 자연이 바로 보이니 그 맛에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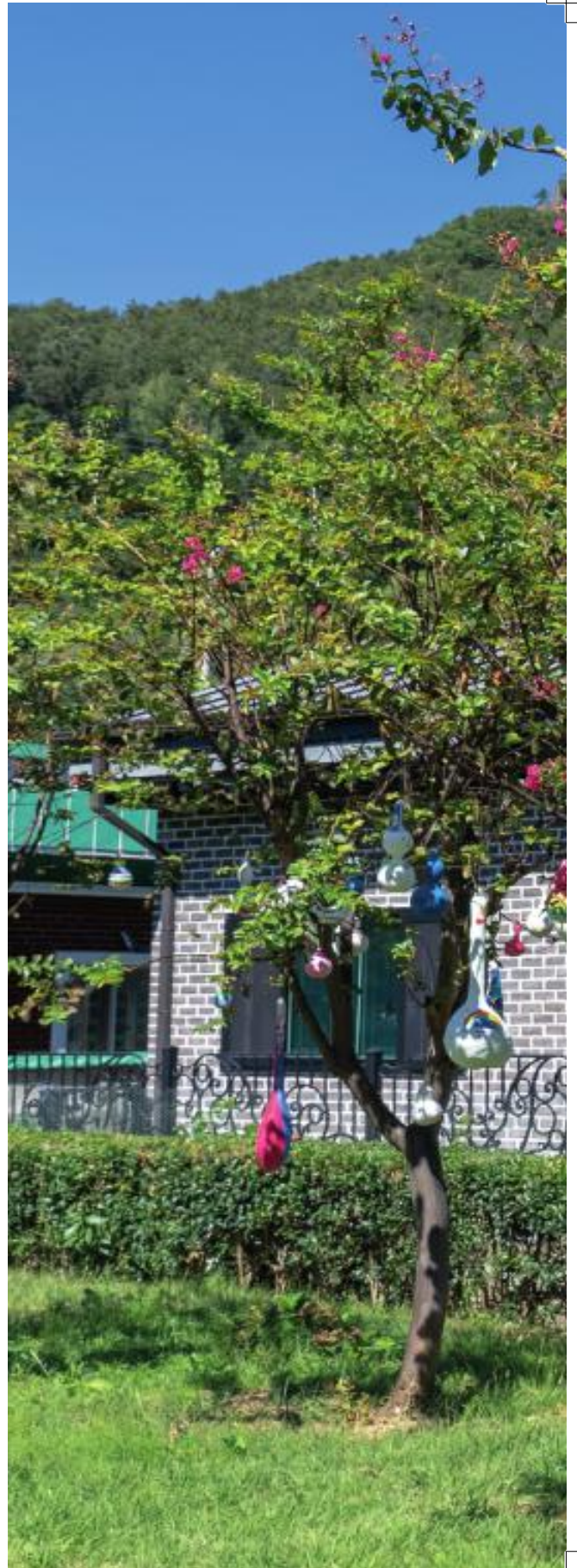
## 앞으로의 각오

최선을 다해 음식을 하겠습니다. 또 도심지와 비교되는 이 마을만의 정겨운 느낌을 꼭 느끼고 싶습니다.

# 4

## 우리가 꿈꾸는 마을

서부마을이 있기까지	102
이장님을 소개합니다	104
현재가 중요합니다	108
나의 고향은 서부마을	112
전하고 싶은 말	120









# 지금의 서부마을이 있기까지

김지근(72) / 전 이장

저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길, 꾸며진 공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낙후된 마을이라 살기 어려웠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받게 되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을 깨끗이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주택가 사이 좁은 골목처럼 예전에는 모든 길이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느라 분쟁도 많았고 고생을 좀 했지만, 지금 깨끗해진 마을을 보면 자부심이 느껴지고 정말 뿌듯합니다.

2017년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농림부)으로 조롱박 터널을 조성했습니다. 외부인의 유입을 통해 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박넝쿨처럼 어우러져 대박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박을 직접 심고 키워가면서 예쁘게 가꾸었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의 마을 활동을 인정받아 마을만들기사업에 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장이었던 마지막 2019년도에 다른 마을만들기 위원장들, 양산시와 함께 일본에 가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노력 덕분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마을 박터널 오픈 포스터

## 본업의 경험이 마을 아이디어로

제 본업은 조경에 관한 일입니다. 벌써 20-30년 됐으니 마을 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지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300년 넘게 살아온 이 마을 토박이입니다. 신도시가 되기 한참 전부터 황산공원까지 전부 다 농지였는데 90년도에 공원으로 바뀌고 하나둘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농사짓던 사람들은 전부 장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도 농사를 그만두고 제가 조경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박터널을 만들거나 공원을 가꾸는 데에 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발판이었습니다.

## 서부마을의 화합


현재 이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옛날만큼 화합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시 뭉쳐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자 다들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전 이장







## 서부마을 이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영기(63) / 현 이장

### 대나무처럼 곧은 생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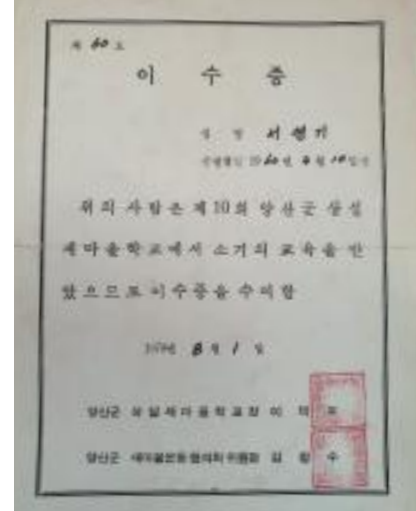
“저의 제일 중요한 생각은 나중에 부러지지 않도록 곧은 생각을 가지고 마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분들도 저의 진심을 느껴 잘 따라와 주시고 자연스럽게 화합이 잘 되겠지요.”



## 결혼하면서 정착한 서부마을

지금의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저의 본가였습니다. 여기 바로 앞이니 서부마을에 쪽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겠지요? 신도시가 개발될 때쯤 살던 집이 철거됐고, 제가 27살에 결혼하면서 서부마을로 왔습니다. 옛날 집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파트만 있습니다.

서부마을에 온 2019년까지 청년회 활동을 하고 지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청년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청년회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마을 일도 돕고 봉사도 하고 재밌게 활동했습니다.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을 일에 더 관심이 생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 나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10회 양산군 상설 새마을학교  
교육 이수증(1979)  
10대 소년시절부터 마을발전을 위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을 가꾸고 있는 서부마을 주민들



서부마을 이장님을 소개합니다 105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영기 이장

## 나는 서부마을 이장이다!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땀 흘리며 일밖에 모르고 살다가 건강 악화로 인해 최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쉬고 있는 1년 차에 마을 이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회 활동으로 관심을 가졌던 마을 일에 이장이 되면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고 마을도 고령화되면서 더 굳게 다진 각오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대나무처럼 곧은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열정적으로 마을에 봉사하는 이장이 되자.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고 떳떳한 부모가 되자” 몇 번을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오직 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마을에  
봉사하는 이장이 되자”**

## 애착 풍물패

2022년 초반 풍물패를 만든 것이 가장 애착이 가고 뿌듯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행사를 진행했지만, 외부 공연팀을 부르거나 소소하게 치렀던 축제를 마을 풍물패와 함께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을 주민들이 배우고 싶다고 원해 만들어진 풍물패다 보니 더 애착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의 풍물패는 부녀회나 다름이 없지요. 일손이 필요하면 모두 회원들과 함께 음식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식사도 대접하고 마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함께 하는 이장

주민들과 함께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도 해보고 축제도 해봤으니, 조롱박과

음식을 판매해 마을에 일자리창출과 함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주민들과 다 함께 끝나가고 꾸려가는 것이 마을을 위한 최고의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따오거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운영을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며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3년도 협동조합 구성과 문화센터운영에 있어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서부마을 골목길



서부마을회관 전경







#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봉사 활동으로 서부마을을 방문했다가  
놀러왔게 된 김민구 마을활동가의 이야기

김민구(47) / 마을활동가

## 그저 좋아서 놀러왔은 서부마을

저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담사랑벽화봉사단 단장으로 봉사활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벽화 그리러 왔다가 여기가 좋아서 놀러왔었습니다.

단순하지요? 와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고령이 시지만 무언가 하자고 말씀 드리면 잘 도와 주시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십니다. 지금은 마을활동가지만 원래 직업이 미술 쪽이었기 때문에 직접 펼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 만능 문화 제작자

저는 서부마을에 오기 전 최소 5년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마을을 문화 예술 체험 마을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전에 주민들과 먼저 친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이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지 꽤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조롱박 터널에 주민 작품들로 갤러리를 만들고 공원과 담장을 깨끗하게 정비해 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공연과 축제 등 소소한 행사를 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황산장터를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열고 있습니다. 회차마다 조금씩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인근 신도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황산공원으로 가는 관광객들도 지나다 들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2~300명이 방문했으니 많이 활성화되었지요. 아쉽지만 황산장터는 겨울 12월부터 잠시 쉬었다가 내년 날이 따뜻해지면 주민들과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 주민의 도움

첫 번째 황산장터는 홍보도 잘 안돼 사람들이 많이 없어 주민들이 나오셔서 십시일반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사함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그게 저를 응원해주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이 있었고 지금의 황산장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국 최고의 마을

첫째로 주민분들이 마을에 살기 좋고 편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익이 생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공간과 행사를 만들다면, 내년 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제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활동비를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내 공원들과 조롱박터널, 황산공원을 문화예술체험마을로 만들어서 누구나 놀러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지속해서 발전하는 마을공동체, 전국 최고의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롱조롱 꿈터널길 아래에서 주민들







김민구

주민들이 제작한 조롱박



조롱박을 장식하는 주민들



## 사랑하는 주민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옛날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고된 삶보다는 이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의 고향은 서부마을



서부마을회관(2022)





서부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결혼하면서 오게 된 사람들, 여유로운 노년기를 위해 옮겨온 사람들 등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한 평생을 서부마을에서

### 신봉익(64)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곳으로 왔습니다. 완전 토박이는 아니지만 지금도 3대가 이곳에 살고 있으니 한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고등학생 때는 청년회 활동을 했는데 방역부터 동네 청소까지 청년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방역하다 보면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길에 가다가 하수구 뚜껑이 열려있는 줄 모르고 빠졌다가 친구들이 올려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20~30명 가까이 됐었는데 다들 취직하고 흩어지다 보니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박 농사도 지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낙동강 물이 깨끗해서 목욕도 하러 가고 조개, 왕새우도 잡아다 팔고 했습니다. 원래는 농사가 잘 되던 곳이었는데 신도시가 생기며 많은 게 바뀌고 삭막해져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논밭 자리는 이제 황산공원이 되었고, 아파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부마을이 더 정감이 가고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금역 상공에서 바라본 물금 서부마을 전경



## 서부마을의 새신부들

### 김정애(72)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결혼도 어디 안 가고 여기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 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습니다.

### 심양자(79)

이곳이 고향이지만 젊을 때는 부산에서 일하다가 91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농사를 따로 돕거나 하진 않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편입니다. 요즘도 별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지냅니다.

### 이춘옥(78) / 경로부회장

67년도에 시집오면서 여기에 왔는데, 95년도부터 6년 동안 부녀회장을 맡았습니다. 샵량문화제에 가서 음식도 하고 응원도 하고 행사에 참여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현재보다 주민들 수도 많아서 바닷가도 놀러 다니고,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 강부돌(72) / 부녀회장

시집왔을 땐 시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아 눈치 보여 숨도 못 쉬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원동에 복숭아를 사 먹으러 갔다가 기차를 놓쳐 집에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산길이 없어 결국 한참 돌아 택시를 타고 왔었죠. 이제는 산을 넘어가는 길이 생겨 쉽게 갈 수 있어 추억이 됐네요.

### 이순자(80)

아기 업고 밥해서 이고 나르고, 그땐 기계가 없어 모든 농사를 손으로 다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해야 할 땅이 꽤 컸거든요. 새벽에 밥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다 늦게 들어오고, 옛날엔 농사하느라 바빠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처음으로 장에 나가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할 줄 몰라 가만히 있으니 앞집 아줌마가 다 팔아주었습니다. 시집은 어린 새댁이 그러고 있으니 안타까워 보였겠지요. 이후에는 노하우가 생겨 10년 넘게 마을 앞 장터에도 팔고 양산장에도 팔러 가고 했습니다. 또 한 30년 전, 40대일 때 꽃이 너무 예쁘길래 이웃에게 종자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상자에 몇 개 넣어서 집 앞에 두고 갔었는데, 갑자기 경찰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떨리는 채로 경찰서에 가보니, 선물 받은 꽃 종자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양귀비꽃 종자였고 그 이웃도 어디선가 날라와 핀 꽃을 키우던 것이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경찰서를 처음 구경해본 아주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 해방 후 서부마을로

### 허병선(85)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뒤 해방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해서 아직도 조금은 일본말이 기억납니다. 서부마을에는 80년도에 왔는데, 물금역 앞에서 택배 운전기사를 18년 동안 했습니다. 일 때문에 서부마을로 온 것이지요. 그땐 농사가 대부분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저는 농사 짓기 싫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를 그만두고 개인택시를 31년 했으니 거의 50년을 운전기사로 보냈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는 초반에는 지금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좁았는데, 출퇴근 시간은 손님이 많아 딸이 다니는 양산여상에 등교시켜주면서 딸은 맨 앞에 태우고, 뒤에는 손님을 태웠어요. 많게는 세 합승까지도 해봤습니다. 버스는 좁고 덜컹거리고 난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그래도 무사고 표창장도 받은 적 있고 메달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차는 지난봄에 없었고, 지금 면허증을 반납하고 오는 길입니다. 면허증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없으니 '인생이 다 되었나' 싶습니다. 아쉬운 마음입니다.

요즘은 전기 자전거를 사서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해서인지 구석구석 다니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자전거로 양산 전역은 물론, 구포시장, 삼랑진도 갑니다. 마을 앞산은 매일 갑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니깐 멀리까지도 갈 체력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전거로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과 중년을 자동차로 보냈다면 노년은 자전거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제는 나도 고향이 서부마을

### 김월화(81)

낮을 가리는 탓에 처음에는 외로워서 조금 옥봤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자식들이 이 근처에 살고 혼자 지내기 싫어서 2년 전에 서부마을로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지낸 사람 중에 외부인이 끼면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 김군자(81)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된 뒤, 5살 때 물금으로 왔습니다. 어릴 때라 그때의 기억은 잘 없지만, 이후로는 학교에 안 다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일을 돕는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강에서 조개를 잡고 아버지 따라 들에 다니며 조금 도와주던 정도였습니다.

### 정순규(83)

이곳에 산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90년도에 물금역으로 발령받아 7년 동안 근무했던 역무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출퇴근이 가까워 아주 편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가용이 많이 없어 사람들이 기차로 출퇴근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하고도 가까워 부산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지금은 물금역도 새로 짓고 신설 시설이지만, 예전에는 육교도 없어 선로 위 건널목으로 지나다니고 했기에 인파가 많았고 교통정리 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 옥영호(69)

공군 대령 퇴직하고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어디를 갈까 찾다 보다 아내가 이곳으로 가자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잔치도 열어 주시고 다가가니까 잘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산 오르막에 농막을 지어 작게 농사를 짓고 소소한 재미를 누렸습니다. 오가며 주민들과 만나다 보니 정이 들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8년 전 아예 농막 밑에 집을 사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정들면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군인 사택에서 살아 이런 삶의 재미를 못 봤지만,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으려고 하니 적응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에서 이곳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 박상은(69)

부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서부마을로 6년 전에 왔습니다. 물금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었는데 도시에서 살다 보니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찾다 보니 서부마을이 딱 적합해 보였습니다. 도심과도 가깝고 자연도 있는 곳, 황산 공원도 가까워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늦게 마을에 온 사람들은 같은 이유일 겁니다.

### 김인자(68)

30년 전, 1993년도에 부산에 살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서부마을로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기 좋고 조용한 게 좋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어려서 나이 많은 분들 대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해져 보려고 1995년도에 부녀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부녀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다 친하지만, 이제는 친목 도모하고 같이 모여 노는 게 일상이 되어 즐겁습니다.

## 현재의 서부마을은?

### 이춘옥(78) / 경로부회장

요즘 우리들은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에 다닙니다. 노래 교실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문화생활을 꽤 많이 누립니다. 다들 젊을 때 고생해서 이제는 즐겁게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마을은 못살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게 삽니다.

### 박상은(69)

퇴직했지만 그래도 할 일이 많아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황산공원에서는 자전거도 타고 산책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일상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물금읍 주민자치 위원, 아동 안전지킴이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재직했다 보니 '아이들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이런 봉사활동이 딱 좋을 것 같아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서리단길이 초기에 꾸며질 때 나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옥영호(69)

물금은 천의 자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사실 제가 항공, 해군, 우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어디를 가나 개발하거나 기획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마을은 앞은 낙동강, 뒤에는 오봉산이 너무 조화롭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꾸밀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사람들은 농사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하겠지만, 나이가 들어 농사도 안 하고 이제는 마을도 별다른 게 없다면,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서울 남산 둘레길보다 이곳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물길 따라 나오는 물소리가 정서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오봉산 둘레길을 따라 물길을 만든다면 농수로도 되고 꽃도 필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관광객은 더 많이 모일 것이고, 살아가는 데에도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마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부마을을 통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 정순규(83)

물금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치는 같지만, 건물을 새로 지었고 선로도 많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KTX가 들어온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양산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서부마을은 상대적으로 느린 것 같아 여기도 빨리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허병선(85)

이장님도 열정적이고 발전이 되는 것 보면 우리 동네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찻집, 식당이 너무 많이 생기니 아쉽기도 하지만 사람이 찾아와 북적해지니 활기도 돌고 장점도 많이 있네요.

다같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는 주민들



“이제는 친목 도모하고 같이 모여 노는 게 일상이 되어 즐겁습니다.”





# 전하고 싶은 말

## 마을 주민



**이순자(80)**

“옛날에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들 편하게 지냅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면 좋겠습니다.”



**유순덕(79)**

“우리 마을은 버스도 쉽게 탈 수 있고 기차도 쉽게 탑니다. 풍경도 좋고 위치도 너무 좋은 마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삽시다.”



**김월화(81)**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좋은 친구들이 생겨 재밌게 삽니다. 북적북적 이야기하며 잘 지냅니다.”



**김군자(81)**

“우리 마을이 잘 되는 건 누구나 가지는 바람입니다. 몇 명 없지만 지금 크는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춘옥(78)**

“우리 마을도 이제 깔끔한 마을로 바뀌었으니 외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양자(79)**

“내 몸이 건강하면 회관에도 나와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강부돌(72)**

“16년 차 부녀회장입니다. 무언가 할 때 적극 동참해주고 지금처럼 다 같이 어울리면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정순규(83)**

“우리 마을이 자랑스럽습니다. 양산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우리가 조금 느리니 여기도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영호(69)**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활성화되게 하고 싶습니다.”



**허병선(85)**

“이장님도 열심히 하고 발전이  
되는 것을 보면 기대됩니다.”



**김인자(68)**

“혼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즐겁습니다. 이웃 간에 소통이 잘 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익(64)**

“늙은 주택을 개량해 깨끗한  
마을로 만들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처럼 삭막한 곳이  
아니라 서부마을이 더 좋습니다.”



**박상은(69)**

“취미생활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새로운 이웃들과 남은  
노년기를 재밌게 보내고 싶습니다.  
황산역지 개발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맹점(82)**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서부마을  
할머니 화가라고 불립니다. 이제  
어업을 그만두니, 취미생활 하며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김대유**

“농촌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하는 기록화사업은 고령화·인구유출에 따른 농촌 자원의 소실을 막고 농촌마을 문화의 보전과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마을에 다양한 형태로 기록화를 추진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보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 팀장 한창민**

“인터넷이나 문헌에는 없는 생생하고 작은 이야기들로 마을마다 품고 있는 농촌다움과 문화를 잇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성화팀 김희애

“아카이빙은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을마다의 이야기 소재를 기록하여 공동체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성화팀 전하정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추억 속으로 잊혀져 가는 옛 마을의 흔적들이 생생한 숨결로 되살아나고 이 모든 활동이 양산의 시간을 남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산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가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부마을에  
도움을 준 상가들**



봉구토스트



매일상회



훈이네 꽃



진도펫



컴포즈커피



금손기획



명성가



양산왕돼지국밥



FEFE자동차



황산나루어탕

양산시  
마을이야기 책

: 서부  
양산의 새로운 시작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농촌활성화팀)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2길 33-1, 3F  
연 락 처 055-382-9196~7  
팩 스 055-382-9198  
이 메 일 ys\_village@naver.com  
홈 페이지 www.ysrrc.or.kr  
기획 · 제작 (주)엔브이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